

BASF 여수공장 무재해 2580일 기록

1996년 8월4일부터 2003년 8월28일까지 ... 노동부 기준 9배 초과달성

한국BASF(대표 김종광) 여수공장이 2580일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기록을 돌파했다.

1996년 8월4일부터 2003년 8월28일까지 달성된 기록은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선례가 없고, 노동부가 제시한 무재해 시간 기준으로 무려 9배수가 된다.

한국BASF 환경안전기술팀의 유종천 이사는 “우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이 철저하게 생활화 돼있고 동시에 관리자들도 적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관리 시스템들을 개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BASF 여수공장은 2000년 BASF 그룹 감사에서 전체 BASF 사업장 중에서 최우수 환경안전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여수공장은 ISO 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국제환경경영시스템), KGS 18001(안전보건경영체제) 및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자율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2000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4>